

## 민속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 채록 제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를 대상으로—

최명환\*\*

—차 례—

1. 머리말
2. 민속자료 기록화 방향과 목적
  - 2.1. 기록화를 위한 구술 채록 방향 설정
  - 2.2. 기록화를 위한 사업 목적 설정
3. 민속자료 조사와 자료 관리
  - 3.1. 조사 대상 범주 선정
  - 3.2. 질문지 작성
  - 3.3. 자료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구술 채록 조사
4. 구술 채록 자료 활용을 위한 제안
  - 4.1. 홍천양수발전소 커뮤니티센터내 기념관 건립.
  - 4.2. 다양한 디지털 출판 및 연재
5. 맺음말

\*이 논문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신규 양수 주변지역(강원 홍천) 민속자료 조사연구 용역'을 위해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원. storytell06@naver.com

[국문초록]

지역 민속은 해당 지역의 민속이 형성되는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갖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장소성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 증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민속의 다양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지역 민속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원도 홍천군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속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작성하였다. 민속자료 수집을 시행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의 행위와 사건, 장소 등과 관련한 지역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한 민속자료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민속, 구술채록, 홍천군, 화촌면, 양수발전소, 조사 방법

## 1. 머리말

‘지역 민속’은 해당 지역의 민속이 형성되는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갖는다. 예를 들면 강원지역의 민속은 강원도 지역민들만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고, 강원도 지역민들은 그에 따른 문화상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인 민속을 시대별 또는 유형별로 간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나름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장소성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2001) ‘세계문화 다양성선언’은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 그 협약(2005)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곧 지역이 지니고 이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민속의 다양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 정체성 담론이 부각되었으며, 1992년 개설한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광역 지역학연구소(팀)만 7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역학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어 수원학·전주학·춘천학·청주학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까지 지역 민속 관련 연구가 확산하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3년에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 민속 진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지역학 연구가 지역 민속 진흥의 학문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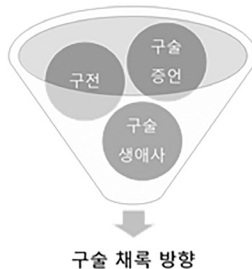
다만,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지역 민속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민속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향토사연구소’ 또는 ‘향토문화연구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부설 ‘향

토사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지역 민속 관련 자료들에 대한 발굴 및 수집, 보관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민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된 지역 민속 관련 자료들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문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대 및 중세에 국한되어 있다. 근현대와 관련한 자료 특히 구술 채록을 통한 자료 수집과 연구까지는 그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근현대 관련 지역 민속 자료 발굴과 수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속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작성한 것이다. 민속자료 수집을 시행하면서 근현대에 살았던, 또는 사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행위와 사건, 장소 등과 관련한 지역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한 민속자료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역에는 인물, 사건, 장소 등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기억이 있기에 문헌 자료는 물론 구술 자료의 발굴과 수집이 요구된다.

## 2. 민속자료 기록화 방향과 목적

### 2.1. 기록화를 위한 구술 채록 방향 설정



민속자료 발굴 및 수집을 위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구술 채록에 의존한다. 이때 진행되는 구술 채록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口傳)과 둘째는 구술증언(口述證言), 셋째는 구술생애사(口述生涯史) 등을 포함한 회고적인 성격의 구술사(口述史)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구전과 구술증언, 구술생애사 등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민속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주로 구전, 구술증언, 구술생애사 등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의 구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것으로 설화와 민요를 비롯한 구비문학, 지명 등이 해당하며, 민속 환경의 변화 등으로 소실된 생업과 경제활동, 일생의례, 민속종교, 세시풍속, 의식주, 민간의료 등도 포함한다. 구술증언은 과거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담, 목격담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기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홍천양수발전소 예정지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대에는 한국전쟁 당시 흔히 ‘병커고지’로 불리는 전투가 있었다. 당시 미군과 중공군이 격전을 벌인 ‘병커고지’ 전투지는 국가수호사적지에 해당한다. 병커고지 전투는 1951년 5월 16일부터 19일 사이 중공군의 제5차 공세 당시, 미군 제2사단 제38연대가 중공군 제12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여 모든 전선의 돌파구 확대를 막은 전투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5, 568~570면.

또한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일대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무장 공비에 대항하다 마을 주민 13명이 희생당하고, 22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조사대상지에서는 이들과 관련한 구술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다.

구술증언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 성격, 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구술증언 모두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사건의 일부분에만 참여하거나 일부분을 목격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술증언에 의한 구술채록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술생애사는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기억을 복원하여 다른 사람(면담자에게 들려주는 기록이다. 그렇기에 구전이나 주술증언과는 달리 한 개인의 삶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민속자료 조사에서도 해당 마을들을 대표하는 ‘민속 인물’ 6~7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을 민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전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술된다. 그러나 구술증언과 구술생애사는 면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곧 구술증언과 구술생애사는 직간접적인 경험과 관련한 기억을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증언과 구술생애사는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는 구술 채록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결과물 활용에 이르기까지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선정한 해당 주제인 구전과 해당 주제와 관련한 구술증언을 기록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구술증언을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구술생애사를 동반해야 한다.

## 2.2. 기록화를 위한 사업 목적 설정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지역 민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민속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은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급격한 민속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공간적 범주를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회에서 현대까지라는 시간적 범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주 안에서 인물과 행위와 사건, 공간 등과 관련한 구전과 구술증언 또한 구술생애사를 확보해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주변 마을들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민속자료의 수집은 ‘기록화’ 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마을 및 마을 주민들과 관련한 인물, 행위와 사건, 공간 등이 생산한 모든 유무형의 민속을 기록화하는 것이다. 곧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는 무형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을 온전히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개인적인 마을 주민들과 마을문화, 특정 장소, 마을 주민들의 생활, 특정 인물과 단체, 마을의 역사, 기억할만한 사건, 특별한 이야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기록화의 대상이 된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기록을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며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마을과 관련한 기록물들에는 일반적인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및 마을에서의 소통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한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등도 조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는 면담자가 구술자로부터 전해 들은 기억을 문자와 시청각 형태로 남기는 작업에 해당한다. 문자로 남기는 것은 녹취록과 관련 문서, 조사보고서와 단행본 등이 포함될 것이고, 시청각 형태의 기록물에는 이미지, 음원, 동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구술채록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서, 포스터, 사진, 편지, 교육교재, 회의록, 발표문, 성명서, 서명용지 등의 종이기록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존재는 사진, 영상, 음원 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들을 수집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형태로 확장할 필

요가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들을 디지털 형태의 음원, 영상, 이미지 등으로 함께 수집하면,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민속자료의 효율적인 기록화가 될 수 있다. 이는 ‘홍천양수발전소 커뮤니티센터(가칭)’가 설립 운영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술 채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된다. 곧 마을 공동체의 아카이브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 민속자료 조사와 자료 관리

#### 3.1. 조사 대상 범주 선정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는 단순한 민속자료의 조사는 물론 기록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수몰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민속 조사와 기록화는 수몰 예정 마을이 지니는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조사 및 기록화하게 된다. 이는 마을문화 전승 단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화촌면 풍천리를 비롯해서 인접 마을인 구성포리, 야시대리, 성산리 등의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 살아왔던 기억과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구술 채록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및 목적	상세 세부 항목
생업과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업은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li> <li>· 조사대상지 일대는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은 생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줌.</li> <li>· 조사 내용은 발농사, 논농사, 화전, 가축사육, 채집 등의 생업활동임.</li> <li>· 생계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 속에 담긴 지혜들을 기록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 경작 활동, 작부체계, 시기, 작물, 활동 내용, 도구, 노동조직, 판매 방법 등</li> <li>· 가축 - 가축 이름, 먹이 종류, 돌보는 방법, 도구, 가축 정보, 판매 방법 등</li> <li>· 채집 - 채집 대상, 채집 부위, 채집 시기, 채집 도구, 채집 대상 정보, 쓰임새, 채집 방법, 판매 방법 등</li> </ul>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역에 사는 다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됨.</li> <li>· 자연환경과 관련을 맺으며 지형 지물과도 관련이 있음.</li> <li>· 조사대상지 일대의 지역적, 인문적 특성과 풍습 역사 등을 포괄하는 문화의 결정체인 지명을 조사 기록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유래담</li> <li>· 과거 지리지에 나타난 지명과 현재 지명 비교</li> <li>· 예전 지명과 현재 지명 비교</li> </ul>
구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문화는 민간의 생활과 신앙, 습관, 풍속 등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양식임.</li> <li>· 조사의 내용은 설화와 민요를 중심으로 수수께끼, 속담 등을 포함함.</li> <li>· 조사대상지에서 전승되는 다양한 구비문화 자료들을 조사 기록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화 - 신화, 신앙적 전설, 지명 전설, 자연물 전설, 인물 전설, 민담 등</li> <li>· 민요 - 밭가는 소리, 지경다지는 소리, 김매는 소리, 풀씨는 소리, 회다지소리, 상여 소리, 유희요 등</li> <li>· 기타 - 무가, 동경, 수수께끼, 속담 등</li> </ul>
일생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생의례는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치르는 의식행위를 말함.</li> <li>· 조사 내용은 출산의례와 혼례, 상례, 장례, 제례 등의 일생의례 활동임.</li> <li>· 의례 분야를 통해 인간의 일생과 이에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 등을 기록함.</li> <li>· 각 의례 단계의 명칭 등에서 발견되는 조사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의례의 특수성 등을 조사 기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례 - 기자, 유산 해산, 산후, 육아 등</li> <li>· 혼례 - 의혼, 납폐, 사주, 청혼서, 납길, 친영, 관례, 사처, 조행, 전안례, 교배례 등</li> <li>· 상례 - 초송, 습렴, 치장, 발인제, 행상, 만사, 노제, 산신제, 하관, 봉토, 봉분조성, 평토제, 반혼제 등</li> <li>· 제례 - 차례, 기제, 묘제, 시제 등</li> </ul>

<p>민속 종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종교는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가정 및 마을 단위로 전승됨.</li> <li>· 무속신앙에서는 무속인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피고자 함.</li> <li>· 민간신앙은 가정신앙 및 마을신앙으로 나누어 가정 및 지역의 전승양상을 알아보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속신앙 - 독경, 무가, 굿</li> <li>· 가정신앙 - 안택, 성주, 삼신, 조왕, 터주신, 업, 대문신, 영등신, 산치성, 액막이, 어부승, 삼신돌 등</li> <li>· 마을신앙 - 산신제, 서낭제, 거리제, 장승제, 솟대제, 기우제 등</li> </ul>
<p>세시 풍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주기적·반복적·의례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행위임.</li> <li>·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듯이 세시풍속은 동일 마을이라도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음.</li> <li>· 가능한 여러 집안의 세시풍속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지의 일반적 세시풍속을 파악하고자 함.</li> <li>· 세시풍속 때의 놀이를 살피어 지역민의 향유 성향을 살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 - 설날, 정월 보름, 2월 초하루(일꾼의 날), 한식, 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백중, 추석, 중양절 등</li> <li>· 절기 - 입춘, 경칩, 청명, 곡우, 망종, 하지, 상강, 입동, 동지 등</li> <li>· 세시 - 정초 12지일, 토종비결보기, 복조리달기, 언나무걸기, 안택고사, 지신밟기, 귀신날, 영등모시기, 약쭉 해두기, 익모초즙 먹기, 호미씻이, 복날, 윤달 등</li> <li>· 놀이 - 연날리기, 춘향이놀이, 널뛰기, 중지들리기, 윷놀이, 호드기불기, 풀각시놀이, 그네뛰기 등</li> </ul>
<p>의식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li> <li>·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는 생활문화의 일면이 의식주를 통해 구현됨.</li> <li>· 조사 내용은 넓은 범주에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의 생활문화 활동임.</li> <li>· 의식주 분야를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개척했던 조사대상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조사 기록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생활 - 사용목적, 옷의 종류와 구분, 착용부위, 옷감의 종류, 직조방법, 염색, 머리모양, 속옷, 세탁법, 구입처, 특수어, 보관함, 속담 등</li> <li>· 식생활 - 일상음식, 세시음식, 의례음식, 저장음식, 음식재료, 조리법, 조리기구, 조리공간, 식기구, 식사 자리배치, 보관, 외식, 지역 음식 등</li> <li>· 주생활 - 축조 시기, 설계여부, 온돌, 재료, 지붕, 축조 의례, 중개축, 이삿날, 식사공간, 취침공간, 집빈공간, 취사공간 등</li> </ul>
<p>민간 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료는 전승요법으로 경험과 구전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옴.</li> <li>· 병증에 대한 치료방법, 재료, 치료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조사대상지에서 전승되는 다양한 민간치료 종류와 방법을 조사 기록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앓이를 할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눈병이 났을 때, 체했을 때, 눈에 삼이 섰을 때, 버짐이 났을 때, 토사곽란이 날 때, 이가 아플 때, 관절염을 앓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동상에 걸렸을 때, 아기가 경기를 일으킬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불이 부었을 때, 화병이 났을 때, 어혈이 생겼을 때, 입안이 험었을 때, 무좀이 있을 때, 허리 아플 때, 귀앓이 할 때 등</li> </ul>

구술 채록의 대상은 곧 구전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생업 및 경제활동 등), 지명(자연마을·보·지명유래 등), 구비문학(설화·민요·수수께끼·속담 등), 일생의례(출생·백일·돌·결혼·환갑·칠순·상장례 등), 민속종교(가정·마을신앙 등), 세시풍속(명절 및 24절기 등), 의식주(예복·작업복·일상복, 명절·일상음식, 주택·우사 등), 민간의료(침놓기·약쑥·삼눈잡기 등) 등이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관련한 구술증언, 마을의 상징성을 지니는 민속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등이다.

이와 같은 민속자료 대상의 총체적인 조사와 기록화는 수몰 예정 지역 및 인근 지역 마을 문화 전승 단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마을 민속은 ‘문헌’ 기록보다는 ‘구술’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기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 3.2. 질문지 작성

질문지법은 조사 주제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해당 질문들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특정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잘 만든 질문지는 그만큼 우수한 구술 채록 자료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민속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질문지법을 사용해야 한다. 구술 채록 주제 및 구술대상자, 면담자 선정, 구술 채록 결과물 정리 등도 해당 마을을 담당할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참여 연구원을 민속 분야 전공자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인 풍천리와 구성포리, 야시대리, 성산리 등에 대한 민속자료 조사 시행을 위해 풍천리 및 구성포리를 담당할 2명의 연구원, 야시대리와 성산리를 담당할 2명의 연구원으로 책임을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렇기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지역을 다

른 연구원들이 조사해야 하므로 공통적인 질문지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속자료 조사 초창기에 해당 구술 채록 주제와 범주가 설정되면, 해당 주제에 대한 질문지 작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는 구술 채록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물론, 구술 채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술 채록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온전한 구술 채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질문지 작성이다. 여기서 마을신앙 조사를 위해 작성한 질문지 일부를 예시로 제시한다.

<p>구술자 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보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li> <li>2. 본관이 어디입니까?</li> <li>3. 제보자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무슨 '띠'이십니까?)</li> <li>4. 제보자가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li> <li>5. 제보자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출생지는 어디입니까?</li> <li>6. 제보자는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li> <li>7. 제보자가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li> <li>8. 제보자는 결혼하고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까?</li> <li>9. 제보자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li> <li>10. 교육 정도를 말씀해주세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li> <li>11. 생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li> </ol>
<p>전승 주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신앙을 맡아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li> <li>2. 마을 사람이라면 유교식, 풍물식 중 어떤 방법을 중요한 방법으로 여깁니까?</li> <li>3. 무당이라면 그들은 마을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li> <li>4. 제관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li> <li>5. 어떤 조직이 있어 담당합니까?</li> <li>6. 제관 및 도가 선출 방법은 무엇입니까?</li> <li>7. 제관 및 도가 선출에서 금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li> <li>8.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li> <li>9. 마을신앙 전승에서 개별적인 소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li> <li>10. 비용은 누가 어떻게 준비합니까?</li> <li>11. 제물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li> <li>12. 신앙 의례가 끝난 후 결산은 누가 어떻게 진행합니까?</li> </ol>

<p>신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신앙의 숭배 대상인 신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li> <li>2. 신격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li> <li>3. 신격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li> <li>4. 신격의 영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li> <li>5. 인근 마을의 다른 신격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li> <li>6. 신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li> <li>7. 신을 그려놓은 탕화가 존재합니까?</li> <li>8. 신의 이름을 적어 모신 위패가 있습니까?</li> </ol>
<p>의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신앙의 명칭은 무엇입니까?</li> <li>2. 제의가 행해지는 날짜와 시간은 언제입니까?</li> <li>3. 의례가 행해지기 전 금기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li> <li>4. 준비 과정 중에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리는 곳은 어디입니까?</li> <li>5. 제장을 준비하는 청소 작업은 어떻게 지행합니까?</li> <li>6.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의는 어떻게 됩니까?</li> <li>7. 산모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li> <li>8. 의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li> <li>9. 술잔은 몇 번 올리고, 누가 올립니까?</li> <li>10. 소지는 누가, 몇 번, 어떻게 올립니까?</li> <li>11. 축문은 누가 쓰고, 언제, 누가, 어떻게 읽습니까?</li> <li>12. 헌식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합니까?</li> <li>13. 제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li> <li>14. 제의가 끝났을 때 마을에 어떻게 알립니까?</li> <li>15. 제의가 끝난 후 차려진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li> <li>16. 의례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말할 수 있습니까?</li> </ol>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민속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 채록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마을별 담당 연구 재면담자를 선정해서 구술 채록을 진행할 경우 마을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질문지 작성을 위해서는 참여 연구자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분야 연구자가 면담자가 아닐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구술 채록을 위한 질문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작성한 질문지를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면담자가 질문지 작성이 어려울 시에는 질문지 자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

해당 구술 채록 조사의 면담자로 선정되어 구술 채록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할 경우, 구술 채록 조사 주제에 필요한 질문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으며,

무관한 질문은 배제되었는가를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검수해야 한다. 아울러 질문지를 구성할 때는 면담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된 편향적인 질문이나 구술자의 성향 등을 불필요하게 추적하려는 식의 유도 질문, 특정 답변을 요구하려는 질문 등 중립적이지 못한 질문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질문지의 질문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구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중 질문을 배제하고 하나의 질문 문항에는 하나의 질문만을 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질문의 경우 가능한 긍정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3. 자료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구술 채록 조사

#### 3.3.1. 구술 채록 횟수의 확장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 자료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 구술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 면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구술자와의 면담 시간과 횟수가 구술 채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주제를 가지고 면담자가 구술대상자와 1회 2시간에 걸친 구술 채록을 통해서 관련 주제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구술 채록 조사를 진행하되, 구술대상자와의 면담을 최소 2회 이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술 채록 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그리고 보완조사 등으로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의 면담 조사는 2시간 내외가 적당하다.

‘1차 면담 조사’는 구술 채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술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를 말하는 용어”이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거나,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홍천양수발

전소 예정지 및 그 주변 민속자료 수집을 위한 구술 채록 대상자가 주로 고�령층이기에 구술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1차 면담 조사는 2차 면담 조사에 앞서서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사이다. 구술대상자 및 관련 민속과 관련 있는 각종 문헌 자료들을 참조하고, 구술 채록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미리 준비한다. 또한 1차 면담 조사를 통해서 구술대상자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과 보유 자료 파악 및 구술 채록 장소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 면담 조사에서 구축된 구술대상자의 정보는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1차 면담 조사를 통해서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 구술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구술대상자로 하여금 기억을 회생하거나 2차 면담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만, 1차 면담 조사의 경우 전승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정도로 가볍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면담 조사는 구술 대상자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구술 채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구술 채록 조사를 위한 1차 면담 조사가 마무리 되면, 2차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 때 구술대상자의 자택,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구술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구술할 수 있도록 면담자는 구술대상자와 협의 결정하여 구술 면담을 진행한다. 다만,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민속자료 조사는 ‘현지조사’와 ‘현장조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는 주제와 관련한 대상자를 직접 면담 조사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실연 또는 재연 현장에서 참여 관찰하며 조사하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한 구술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현지조사가 지니는 한계점을 실연 또는 재연 현장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현장조사가 보완할 수 있다. 앞서서도 제시한 것처럼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민속자료 조사는 텍스트(text) 차원의 자료 수집에 머물지 않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현장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기록화할 필요가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민속자료 조사는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시각에 시작하여 일정한

시각에 정확하게 마쳐야 한다. 특정 상황을 그 자리에서 조사하지 않으며, 뒤 이어 진행되는 다른 상황은 조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작 시기와 마무리 시기를 설정해 두고 그 안에 구술 채록 조사를 완전히 마쳐야 한다.

구술대상자와의 면담은 면담자의 질문에 따라서 제한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술대상자의 기억과 화술(話術)에 따라서 내용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담 조사 후 조사한 내용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서 바로 정리하며,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구술 채록을 위해 구술대상자를 방문했을 시, 구술대상자가 보유한 해당 주제 관련 실물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구술대상자의 허락을 받고 이미지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측을 통해서 관련 내용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 3.3.2. 구술 채록 결과물 정리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는 형태별로 텍스트 자료와 이미지 자료, 동영상 자료, 녹음 자료, 실물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자료는 구술 채록 서식에 맞추어서 정리하되, 구술대상자의 구술 내용과 언어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미지 자료와 동영상 자료, 녹음 자료 등은 자료명, 자료코드, 조사일시, 촬영일시, 제보자 인적사항(지역, 이름, 성별, 연령), 면담자 및 기록자 등을 표기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료유형	자료 정리 방법
텍스트	자료명, 자료코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제보자 인적사항(성별, 연령), 조사자 및 정리자, 조사자의견 명기
이미지	자료명, 자료코드, 촬영지역, 촬영일시 명기
동영상	자료명, 자료코드, 촬영지역, 촬영일시 명기

음원	자료명, 자료코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제보자 인적사항(성별, 연령) 명기
----	--------------------------------------------

구술대상자와의 면담 이후에 취득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은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서 바로 정리해야 한다. 면담자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기에 면담자의 자의적인 정리를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누락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완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1차 면담 조사와 2차 면담 조사에서 수집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가지고 구술대상자를 방문해서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구술대상자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면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 등도 새롭게 구술 채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3.2. 구술 채록 결과물 검독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및 그 주변지역 민속자료 조사를 통한 결과물들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결과물들에 대한 ‘검독’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 결과물 내용의 충실성과 구술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검독 원칙을 설정하고 구술자 검독, 면담자 검독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침을 예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면담자 검독 지침

첫째, 면담자는 직접 검독을 진행한다. 둘째, 면담자는 채록한 영상과 음원을 확인하면서 검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듣지 못한 부분을 첨가한다. 넷째, 중요 인명, 지명, 날짜, 사건 등의 오기가 있으면 수정한다. 다섯째, 오타자, 부분 녹취 누락 등을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구술자 검독 지침

첫째, 면담자는 구술자에게 사업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구술자 검독시 ‘비공개’ 부분을 확인한다. 셋째, 별도의 검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구술 자료 활용 및 동개 동의서를 작성한다. 넷째, 검독 시 잘못된 구술 내용 등이 확인되면, 면담자에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 4. 구술 채록 자료 활용을 위한 제안

### 4.1. 홍천양수발전소 커뮤니티센터 기념관 건립

구술 채록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서 구술 채록 결과물의 직접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구술 채록 결과물의 활용은 구술 채록 조사의 결과물을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홍천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서 수집한 민속자료들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최종 보고서’와 같은 단행본 출판보다는 다른 형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에 홍천양수발전소 내부에 전시관 미 기념관 건립이 가장 큰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양수사업소 자체 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더 나아가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며, 서울기록원 같은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관내의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서울의 기록관리 전문기관이다. 2019년 5월 15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에 설립되었으며, 전문 보존공간(지하 1~2층), 시민참여 공간(지상 1~3층), 기록물 작업공간(지상 4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정과 시

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130만여 점의 방대한 공공기록물을 수집해 영구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관리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설치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실과 전시 공간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한편, 서울기록원에서는 기록을 카테고리별로 묶거나 컬렉션을 만들어 시민이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이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록물 카테고리별 검색과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기가 가능하다.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 참조.

원본의 경우 사전신청 후 서울기록원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http://archives.seoul.go.kr>)에서 기록물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직접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보존서고에서 기록물을 반출해 공개하고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커뮤니티 내부에 건립 예정인 전시관은 물론 홍천양수발전소로 건립으로 인한 수몰 이주민, 그 주변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 결과물을 비롯한 지역 민속 관련 기록물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 4.2. 다양한 디지털 출판 및 연재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한 결과물들을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판, 또는 연재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결과물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홍천양수발전소 설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에서 구술 채록한 민속자료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판, 연재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학술 연구 도서

구술대상자와의 면담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전문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

술 연구 및 새로운 관점의 학술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구술 채록 주제와 관련 논문과 학술서의 경우 전승자의 내면이나 시대적 상황까지 제대로 담지 못한 이론서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구술 채록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술 도서는 구술 대상자의 출생부터, 성장, 활동 시기, 노년기 등의 성장 과정은 물론, 해당 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기에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웹진과 오프라인 출판물

구술 채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웹진과 잡지 등을 출판할 수 있다. 해당 주제 관련 구술 채록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적 환경 및 사건을 비롯해서 인물 등을 포괄하는 내용까지도 수록할 수 있다.

### 사진첩

구술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구술대상자들과 주위 환경 관련 이미지들은 표정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아울러 문화적 단면까지도 읽을 수 있다.

### 이미지를 이용한 에세이

구술 채록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관련 사진과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한 에세이 제작도 가능하다.

### 스팟(spot) 형식의 동영상

구술 채록을 통해 습득한 인터뷰 동영상의 직접적인 활용은 어렵다. 따라서 구술대상자의 육성, 이미지 자료, 동영상 등을 이용한 스팟영상을 제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물론, 홍천양수발전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의 안내실, 전시관 등에 사용하는 영상, 교육용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등의 SNS 활용 등도 가능하다.

## 5. 맺음말

이 글은 강원도 홍천군에 건립되는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속자료 조사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렇기에 조사 방법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홍천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수몰 지역 이주민이 발생하고, 앞으로 급변화할 수 있는 민속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현지점에 이루어지는 민속자료 조사가 ‘수몰’과 ‘마을 주민 이주’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구술 채록 조사와 기록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지역은 홍천군 관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토박이보다는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증가 등으로 주요 제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특히 전통사회 민속을 기억하며 현장을 유지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마을 민속 조사에 앞서 민속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제보자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193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다. 그들에게서 구술로 전해지는 민속을 조사해야 하고, 그 이후 출생하신 분들을 만나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민속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

홍천양수발전소 건립지역 가운데 풍천천과 성산천 상류라고 할 수 있는 풍천리와 구성포리는 산촌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으며, 하류에 해당하는 구성포리와 성산리는 ‘들이 어느 정도 있기에 산촌과 농촌의 성격을 보이는 지역이다. 특히 풍천리는 1973년 이전에 행정구역이 홍천군이 아닌 춘천시 관할이었기에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오는 구성포리, 야시대리, 성산리 등과 일부 차이 나는 민속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10년 초반부터 홍천군 관내 민속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홍천양수

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민속 조사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전에 이루어진 민속 조사는 기록화라는 과정에서 시행하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시행하는 홍천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민속자료 조사연구는 기존에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의 온전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에서 제시한 조사 방법을 염두에 두고 홍천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민속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조사 결과물 등에 대한 대비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ABSTRACT]

**Proposal of an oral-record for collecting folk data**

Choi, Myunghwan(The institute Kangwon Community Culture)

Local folklore has different shapes depending on the background in which the local folklore is formed. At present,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local folklore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e region's unique characteristics and identities · Place explications and the like is also increasing. The growing interest in local folklore is a global trend as well as in our country. The region's unique and differentiated variety of folklore is attracting attention.

However, along with the interest in local folklore, systematic excav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folk materials is required. A Hongcheon pumping power plant is planned to be built. We thought about how to collect folk data in the area where the pumping power plant was planned to be built. We excavated folk data related to the actions, events, and places of the villagers and villagers, and examined how to do the collected folk data.

**Key words:** Folk, Oral-record, Hongcheon-gun, Hwachon-myeon, Pumping power plant, Research Methodology

## [참고문헌]

### ■ 단행본

국립무형유산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연구의 성과와 가능성』, 2010, 7-117면.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 2012, 21-165면.

김향자,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정책사업 추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3-137면.

농촌진흥청, 『향토자원에 숨어있는 부를 찾아라』, 농촌진흥청, 2010, 8-144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메뉴얼』, 2013, 6-39면.

오재환,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9, 10-182면.

최경은,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3-147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17면.

한동현 외, 「이용자 맞춤형 경기 정명천년 기록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7, 3-101면.

### ■ 논문

김덕목,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학연구』49집, 한국기록학회, 2016, 300-325면.

김은영,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정리방안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9, 13-70면,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구술, 구술자료, 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7-8면.

■ 기타자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03.do>/검색일 2021/10/20

춘천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cccc.or.kr/>검색일 2021/10/20

접수일: 2022.04.17. 총평일: 2022.04.28. 게재확정: 2022.04.30.